

## 농인(聾人)과 농 사회에 대한 이해와 수어(手語) 성경의 필요성

안영희\*

### 1. 들어가는 글

한국에는 약 35만 명의 농인(聾人)<sup>1)</sup>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한국농인협회, 2004). 이는 중소도시 인구와 맞먹는 적지 않은 인구 수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다수의 청인(聽人)<sup>2)</sup> 사회 속에 소수의 농인을 속하게 하는 정도로만 사회 통합을 생각해 왔다. 농인들은 오랫동안 자신들의 모임이 청인 집단과는 다르다고 인식해 왔으며, 청인과의 교류에 상당히 소극적이었다. 상호 교류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아직까지도 한국에서는 농인들은 독자적인 사회문화적 집단에 소속된 구성원이라는 생각을 생소한 관점으로 보고 있다. 지금도 의학을 비롯한 자연과학 쪽이나 청각장애아동 교육 쪽의 전문가들은 농인들을 병리학적인 상태인 ‘청력 손실’이 있는 사람들로 보고 있다.

이로써 농인에 관한 연구나 접근은 청력 손실의 원인, 유형, 장애 정도에 관한 기초적인 실태조사에 집중되어 있으며, 청각 장애라는 신체 결함이 농인의 사회적응에 어떤 병리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지에 대해 초점이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농인 자신들은 수어(手語)<sup>3)</sup>를 자기들의 언어로 사용하는 공동체로 스스로를 생각하고 있으며, 농인들을 병리적인 상태로 보려는 전통적인 관점을 단호히 거부해 오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 사회에 살고 있지만 올바르게 알려져 있지 않은 농인 공

\* 나사렛대학교 겸임교수, (사)한국농인협회 서울시 서초구지부장 겸 수화통역센터장.

1) 우리나라는 ‘청각장애인, 농인’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미국을 비롯한 농인복지 선진국에서는 이미 ‘Deaf People’ 즉, 또 하나의 언어를 가진 소수민족으로 인정하여 ‘농인’으로 사용하고 있음에 따라 바람직한 용어사용 확산을 위해 ‘농인’이라는 용어로 사용하였다.

2) ‘건강청인(健聽人), 일반인’이 아닌, 소리를 듣는 데 건강한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청인(聽人)’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3) 수화(手話)가 아닌 수어(手語)가 적합한 이유는 농인의 모든 가치와 행동 양식을 포함하는 농 문화를 표현하기 때문에 손말[話]보다 손언어[語]가 타당하며, 언어로서 갖추어야 하는 의미와 화용의 규칙과 그것을 가시화하는 형식문법까지 가진 하나의 언어로 인정할 수 있다(최상배, 안성우, 『한국 수어의 이론』, 서울: 서천사, 2003).

동체인 농인 사회와 수어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함으로써 수어 성경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수어 성경이 있어야만 한국의 농인 사회에 복음의 진리가 제대로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되어 싹을 내어 뜻 깊은 결실을 낼 수 있다. 설령 농인 목사나 전도사가 문맹 농인들이 있는 지역들로 파송되고 교회가 설립된다 해도, 그 교회 자체는 성장할 수도 있겠지만, 수어로 된 성경이 없다면 그 성장은 외적인 것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농인들의 언어는 한국어 음성 언어가 아닌 손으로 표현하는 시각언어인 한국 수어로 이루어진다. 한국 수어 성경이 있어야만 농인들의 제1언어이자 모국어인 한국 수어를 통해 농인들이 진정한 복음의 의미를 알 수 있게 되며, 살아 계신 하나님의 몸 된 교회가 비로소 그 본연의 생명력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농인을 위한, 농인과 그 가족들을 위한, 전문수화 통역사를 위한, 더 나아가서는 한국을 오고가는 외국 농인들의 복음화를 위한 수어 성경의 번역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농인들의 언어에 기초한 수어 성경의 필요성에 대한 성경적이고 현실적인 이해를 제시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 2. 농인과 농 사회

### 2.1. 농인(Deaf People)과 농 사회의 개념

문화는 어떤 지리적 단위 안에서 그 지역의 체제에 알맞게 형성된 사회화 유형을 말하는 것이다.<sup>4)</sup> 문화가 제각기 특유한 속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다른 문화와 우열을 논할 수 없다. 따라서 수어를 사용하는 농인집단의 사회 문화가 음성 언어를 사용하는 청인집단의 사회 문화보다 열등하다고 말할 수 없으며, 농인들의 사회와 문화는 그 고유한 특성이 있는 그대로 인정되어야 하며, 농인에 대한 이해와 관점, 그리고 개념과 범위도 사회 문화적 상황 속에서 정리되어야 한다.

#### 2.1.1. 농인에 대한 이해와 관점

농인이 된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청력 손실이 있음을 의미하지만, 청력 손실 정도라는 것이 농인의 기준을 정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중요한 기준은 다른 농인과 같은가, 다른 농인처럼 행동하는가이다. 농인들은 흔히 자신의 농인 친구의 청력 손실에 대해 세세하게 알지는 못한다. 예를 들어 극히 소수이지만 자신

4) W. Sherman, and C. Padden, "The Deaf Community and the Culture of Deaf People", W. Sherman ed., *American Deaf Culture: A Anthology* (Butonsville: Linstok Press, 1989).

의 농인 친구가 전화를 사용할 정도로 청력이 좋다는 것을 알고 놀라기도 한다.<sup>5)</sup>

농인에 대한 관점은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병리적 관점에서 벗어나 ‘수어를 일상 언어로서 사용하는 언어적 소수파’라는 관점으로 보아야 한다. 농 정체성(Deaf identity)이란 사회 문화적 관점에서 농인을 소수집단으로 이해하며 이들이 자신의 언어와 문화를 포함하고 있는 소수 집단으로 이해하고 농인 집단에 대해 갖는 일체감이라고 한다.<sup>6)</sup> 농 정체성 형성은 농 공동체나 수어에 대한 노출을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으며 농 정체성을 7개 범주로 나누면 <표 1>과 같다<sup>7)</sup>.

<표 1> 홀콤(Holcomb)의 농 정체성 7개 범주

구 분	특 징
균형적 이중 문화 정체성	농인, 청인 문화 모두 편안하게 느낌.
농인 중심의 이중 문화 정체성	농 공동체와 관계를 갖지만 청인과도 잘 어울림.
청인 중심의 이중 문화 정체성	농 공동체와 제한적으로 관계를 가짐.
문화적 분리 정체성	농인과의 교류를 선호하며 청인과 제한적 관계를 가짐.
문화적 고립 정체성	구어 중심 생활을 하며, 수어를 배격함.
문화적 주변 정체성	청인, 농인 모두에게 편안함을 느끼지 못함.
문화적 포로 정체성	농 공동체와 농 문화를 접할 기회를 갖지 못함.

이 밖에도 와인버그(Weinberg)와 스테리트(Sterritt)<sup>8)</sup>는 농인 정체성, 청인 중심 정체성, 이중정체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맥스웰(Maxwell)<sup>9)</sup>은 농인 정체성과 청인 중심 정체성으로 구분하고 있다. 특히 와인버그와 스테리트<sup>10)</sup>는 청인 중심 정체성을 가진 농인보다 이중 정체성을 가진 농인이 타인에 대한 관대한 수

5) Ibid.

6) C. Lucas, and C. Vallil, “Language Contact in the American Deaf community”, C. Lucas, ed., *The Sociolinguistics of the Deaf Community* (Washington: Gallaudet University Press, 1989), 11-40.

7) R. Holcomb, “Development of Deaf Bicultural Identity”, *American Annals of the Deaf* 142:2 (1997), 11-40

8) N. Weinberg and M. Sterritt, “Disability and Identity: A Study of Identity Patterns in Adolescents with Hearing Impairments”, *Rehabilitation Psychology*, 31:2 (1986), 95-102.

9) M. Maxwell, “Simultaneous Communication: The State of the Art and Proposals for Change”, *Sign Language Studies* 69 (1990), 333-390.

10) N. Weinberg and M. Sterritt, “Disability and Identity: A Study of Identity Patterns in Adolescents with Hearing Impairments”, *Rehabilitation Psychology* 31:2 (1986), 97-98.

용적 행위나 사회적 변화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농 정체성을 단순하면서도 쉽게 이해되도록 잘 설명해준 사람이 글릭크만(Glickman)이다. 글릭크만(Glickman)<sup>11)</sup>은 쉬(Sue)의 소수 정체성 발달(Minority Identity Development) 이론의 틀을 빌려와 농 정체성 발달(Deaf identity development) 이론을 만들었다.

농 정체성 이론은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농인이 농인 문화와 농 공동체에 대하여 어떻게 동일시를 하는지 혹은 하지 않는지에 대해 공식적으로 개념화하고 정의하는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이론에서는 농인의 정체성을 문화적인 관점에서 네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앞서 살펴본 여러 학자들의 개념을 종합적으로 잘 정리하고 있다. 특히 피셔(Fischer)는 이 이론을 토대로 농 정체성 척도를 개발하였고, 피셔의 토대가 되는 글릭크만의 이론은 농 정체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해준다.

### (1) 청인 중심 정체성(Hearing Identity)

이것은 병리적인 관점에서 농을 이해하는 정체성으로 농은 청인에 비해 낮은 지적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며, 사회생활에 있어서도 미흡한 것으로 이해한다.<sup>12)</sup> 이 정체성을 가진 농인은 청인의 삶의 양식을 따라가려는 경향이 많이 나타난다. 여기에서 농인은 청인 중심 사회로의 이동이 사회적 성공이며 나아가 장애를 극복하는 것으로 이해한다.<sup>13)</sup>

### (2) 주변 정체성(Marginal Identity)

이 유형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농에 대해 혼돈과 양가감정의 특징을 많이 나타내고, 의사소통 측면에서 국어, 수화 모두 미흡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농인 사회나 청인 사회 모두에서 부적응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또한 농인 또는 청인 누구와도 깊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농인 사회와 청인 사회 중 어디에 소속감을 가져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소속감을 갖는 준거집단이 자주 변하는 특성을 보인다.<sup>14)</sup>

### (3) 몰입 정체성(Immersion Identity)

11) N. S. Glickman, *Deaf Identity Development: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a Theoretical Model* (Amherst: University of Massachusetts Press, 1993), 41-49.

12) Ibid.

13) L. C. Fischer, *Cultural Identity Development and Self Concept of Adults who are Deaf: A Comparative Analysis* (Arizona: Arizona State University, 2000).

14) N. S. Glickman, *Deaf Identity Development: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a Theoretical Model* (Amherst: University of Massachusetts Press, 1993).

이 정체성은 농인 문화와 청인 문화를 분명하게 구분하고 두 문화 중에서 농 문화와 농을 강조하는 단계이다. 이 정체성에 머무는 농인들은 청인 세계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대신 농 세계는 이상적인 것으로 여긴다. 청인 중심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과 달리 몰입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은 농(듣지 못함)을 치료받아야 하는 장애의 개념이 아니라 문화적인 차이로서 강조한다. 농인은 항상 옳고 청인은 항상 그르다는 사고나 태도가 몸에 깊이 배어 있다. 따라서 청인은 불공정하다고 인식하며, 청인들에게 항상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리고 주로 청인들의 가치와 반대로 나타난다. 즉 수화가 음성 언어보다 더 우위에 있다거나 농인들은 오직 농학교에서 특수교육을 받아야 한다거나 농학생에 대한 교육이나 상담은 농인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다. 그리고 수화를 하면서 말을 동시에 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한다. 청인 세계에 대한 분노가 있으며, 이 분노는 이중문화 정체성에 도달하면 감소하게 된다.<sup>15)</sup>

(4) 이중문화 정체성(Bicultural Identity)

이 정체성을 가진 농인은 농을 문화적인 차이로서 인식하며, 청인문화와 농인 문화를 모두 존중하며, 두 문화의 강점과 약점을 모두 인식하는 특징을 갖는다. 몰입적 정체성에서 나타나는 청인 사회에 대한 분노는 없으며, 오히려 이들과 함께 어울리는 문화를 지향한다. 따라서 수화와 국어를 함께 존중하며 의사소통을 할 때 두 가지 방법을 함께 사용한다. 그리고 이중문화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은 ‘농’에 대해 균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sup>16)</sup>

이상의 농 정체성 이론을 정리하면 <표2>와 같다.

<표2> 글릭크만의 네 가지 유형으로 본 농 정체성 이론<sup>17)</sup>

구분	준거집단	농에 대한 시각	농인 사회에 대한 시각	정서적 특징
청인 중심 정체성	청인(Hearing)	병리적	전형적	절망, 우울
주변 정체성	유동적(Switches)	유동적	좋은 것, 혹은 나쁜 것으로 변화	혼란, 갈등
몰입 정체성	농인(Deaf)	문화적	긍정적, 비상호 교환적	분노/칭각 장애에 대해서는 사랑
이중 문화 정체성	농인(Deaf)	문화적	긍정적, 개인적, 통합적	자아수용, 칭각 장애 집단에 대한 자부심

15) Glickman, *Deaf Identity Development*.

16) Ibid.

17) 이준우, “한국 농 청소년의 농 정체성과 심리사회적 기능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 숭실대학교, 2003.

### 2.1.2. 농인 사회(Deaf Community)의 개념과 범위

농인들은 자신들의 모임이 청인집단과는 다르다고 인식한다. 농인들은 일차 언어인 수어와 농 지역 사회, 농 교육 기관, 청인들과는 다른 신체적 의사소통의 사용, 농 지역 사회인끼리 결혼하는 일 등으로 청인과는 다른 독특성을 갖고 있다.<sup>18)</sup>

청각 대신 시각에 기초하는 독특하고 다양한 농인들만의 ‘고유문화’들은 농인 간의 끈끈한 유대관계를 가질 수 있게끔 한다. 청력 손실 정도와는 무관하게 단지 농인이라는 사실 하나로 그 사회에 동화되는 것이므로, 농 문화는 일상적 문화의 주요한 요소로서 수어를 공유하는 이들이 자신들의 정체감을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2.1.3. 문화적 관점

일본에서는 문화적 관점의 농인을 일본어와는 다른 일본 수어라는 언어를 사용하며, 귀가 들리지 않는 언어적 소수파라고 정의하였다.<sup>19)</sup> 이 정의에서의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인의 정의에서 중요한 것은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점이 아니라 구어와는 다른 언어인 수어를 사용하는 소수민족이라는 점이다.

둘째, 수어는 일본 수어와 심킴<sup>20)</sup>으로 분류된다. 이와 같이 수어를 구분하는 이유는 이 두 가지가 서로 이해하기 불가능할 정도로 이질적이기 때문이며, 수어의 가치를 존중한다는 측면을 반영하기 위해서이다.

셋째,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을 언어적 배경에 의해 네 가지로 분류한다. 농인(어릴 때부터 귀가 들리지 않고 농학교에 다닌 사람), 난청인(어릴 때 귀가 조금 들렸거나 혹은 전혀 안 들렸지만 농학교가 아니라 일반학교에 다닌 사람), 중도 실청인(어릴 때는 귀가 들려서 구어를 사용했지만 어른이 된 후 청력을 잃은 사람), 미취학농인(어릴 때부터 귀가 들리지 않았으나 농학교 또는 보통학교에도 다닌 적이 없어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었던 사람)이다.

위 분류의 특징은 청각 장애를 청력 손실 정도가 아니라 언어적 배경으로 분류한 것이다. 위 분류 중에서 농인 대다수는 수어로 말하지만 난청인, 중도 실청인, 미취학 농인 중에서는 극히 일부이다. 특히 수어를 모어로 사용하는 사람은 농인

18) J. E. Kelly, *Transliterating: Show me the English* (Alexandria: ARID Press, 2001).

19) 이와이 외 편역, 『수화의 인식전환을 위한 농 문화의 이해』(서울: 농아사회정보원, 2002).

20) 심킴(Sim-Com)은 구어의 문법에 맞게 수어단어를 조동하는 것으로 구어와 수어단어가 동시에 조동되기 때문에 동시적인 의사소통이라 한다. 이는 구어대응 수화라고도 하며, 문법수화와 거의 같은 의미이다. 농 문화 선언에서는 중도실청인, 난청인, 일본 수어를 배우는 기회를 갖지 못한 청인의 수화를 가리킨다.

뿐이고, 나머지는 문법수화와 비슷한 의사소통 수단을 사용한다.

## 2.2. 농인 사회의 특성

### 2.2.1. 언어적 특성

농인들에게 가장 보편적이고 주된 의사소통 방식이자 농인 사회의 의사소통 양식인 수어는 농인들에 의해 창조된 손으로 표현하는 비음성 언어로서 주로 농인들에 의해 만들어졌거나 채택된 시각운동 체계로 수어는 농인들이 어릴 때 중도 청각 장애를 가진 상태에서 배우는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 언어 중의 하나가 된다. 수어가 농인에게는 완벽한 대화를 보증하는 자연스러운 언어이기 때문이다.

수어는 농인에게 있어서 인식력과 사회 발달에서 중요한 규칙이 되며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정보 및 청인 세계와 농인 세계 쌍방에 대해 알아가고 서로 정보와 의사를 배우는 것을 돕는 것이며, 단순한 손짓이나 제스처어나 마임이 아니다.

생생한 언어커뮤니케이션의 중요한 수단이며 농인들 사이의 약속이기도 한 수어는 감정에 관한 정보가 담겨 있기도 하며, 대화를 통제하는 정보를 전달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우리 사회가 농인을 결함 있는 사람이 아닌 수어라는 언어를 사용하는 소수 민족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는 수어를 중심으로 한 농인 공동체의 정체성이나 이들의 지위 향상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 2.2.2. 문화적 특성

농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고유문화’를 가지고 있다. 이것을 농 문화(Deaf Culture)라고 한다. 이런 농 문화는 행동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주로 시각에 의해 이뤄진다. 농인들과 농인 사회를 가장 두드러지게 보여주는 특징은 농인들의 문화적 가치(cultural values)이다. 이 가치는 농인이 어떻게 행동하고 무엇을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할지를 결정하게 한다.<sup>21)</sup> 농 문화(Deaf Culture)는 청각에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갖는 독특한 문화로서, 거의 대부분이 농 학교에서부터 시작된다. 농 문화는 듣는 능력의 청각 상태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일상적 문화의 주요한 요소로서 수어를 공유하는 그들 자신의 정체감을 표현한 것이며, 농인이라는 사실 하나로 그 사회에 동화하게 되는 것이다.

농인들의 행동 규칙들은 청인사회와 다르다. 대화할 때는 서로 눈을 마주보면서 대화를 하며, 대화 장소를 조명이 밝은 공간을 선호한다. 차(茶)를 마시며 대화하는 자리에서도 테이블 위에 시선을 분산시키는 꽃병이나 장식이 없는 것을 선호한다. 또한 상대방의 주의를 끌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데 ① 어

21) Sherman, and Padden, “The Deaf Community and the Culture of Deaf People”.

깨를 가볍게 치고 ② 손을 흔들으로써 상대방을 부르기도 하며 ③ 바닥에 발을 구름으로 인한 진동으로 상대방에게 진동으로 자신이 부르고 있음을 전달하고 ④ 불빛의 깜박거림을 이용하기도 하는 등 몸과 시각으로 느낌을 전달하는 받게 함으로 주의를 끄는 특성은 농 문화 속의 일부분이다.<sup>22)</sup>

청인사회에서는 자신의 이름만을 이야기 하는 정도로 그칠 때가 많지만 농인 들은 소개하는 방법부터가 다르다. 첫째, 이름과 성을 모두 이야기하며, 둘째, 자신은 농인(청인이 농인에게 자신을 소개할 경우는 ‘저는 청인입니다’라고 소개 함)이라고 말하고, 셋째, 수어 이름을 소개(각 나라마다 수어 이름도 제각기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농인들은 주로 얼굴에 특성을 나타내는 얼굴 수어 이름을 사용)하며, 넷째, 어느 도시와 어느 지방에서 왔는지 소개하고, 다섯째,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소개(어느 농 학교 출신인지 일반 학교를 나왔는지 또는 현재 어느 농 학교나 일반 학교를 다니는 중이라고 소개를 함)한 후에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보통이다.<sup>23)</sup>

### 2.2.3. 교육적 특성

전 세계 농인 사회에 있어서 최대의 관심사는 교육 문제이다. 우리나라도 예외 가 아니다. 우리나라의 농 교육에 있어서 언어교육적인 접근과 환경 조성은 최근 에 와서야 급격하게 발전해 왔으나 초창기에는 매우 열악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농 교육 역사가 100년이 넘었지만 과거의 40대 이상의 농인들은 교육 적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했으며 설령 받았다 해도 너무나 열악한 환경이었다고 판단된다.

농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의 다양한 방법들 중에서 중요한 몇 가지를 비교 분석하여 그 개요를 정리해보면 <표3>과 같다. <sup>24)</sup>

<표3> 농인 교육 방법의 비교<sup>25)</sup>

교육 종류	교육 방법	특징
구어중심 (Oralism)	① 모든 의사소통은 구화와 말 읽기로 행함. ② 지문자와 수어를 사용은 전면 금지.	자연발생 언어의 습득 성장을 지체시키거나 저해.
수어중심 (Manualism)	수업 중 지문자와 수어 사용을 강조.	구어 습득 능력이 떨어 짐.

22) 변승일, “농 문화 이해하기”, 『아름다운 손짓』 24 (2003), 72-73.

23) Ibid., 72-73.

24) E. Drasgow, “American Sign Language as Pathway to Linguistic Competence”, *Exceptional Children* 64 (1998), 329-342.

로체스터 방법 (Rochester Method)	① 지문자 사용 강조하면서도 구어 방식에 역점을 둠. ② 낱말, 어구들과 문장들을 구어의 낱말들처럼 신속하고 쉽게 철자화 되게 한다.	수어의 사용을 배제함.
총체적 의사소통 방법 (Total Communication)	① 구어법과 수어법을 종합하여 하나의 포괄적인 의사소통 절차로 함. ② 모든 의사소통 수단(몸짓, 구어, 말 읽기, 지문자, 형태 표현 신호, 읽기와 쓰기 등)들을 권장. ③ 언어습득과 구어 발달에 잠재력을 최대한 개발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기회 제공.	① 구어 중심의 문법적 수어 체제 확립을 목적으로 하여 자연 수어 체제와 다름. ② 수어 중심의 수어 체제 확립을 목적으로 함.
큐우드 스피치 (Cued Speech)	① 입술, 목, 어깨 가까이 선을 갖다 대어줌으로써 표현하게 하는 것. ② 입술에 나타날 수 없는 소리들을 인식함으로써 말 읽기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적절한 ‘음’요소를 인식, 결합하고 만들어냄으로써 표현력 강화하기 위해 사용.	구어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완화시키기 위해 개발된 방법.
이중문화 및 이중언어 방법 (Bilingual and Bicultural Approach)	① 농 아동의 의사소통 방식을 사회와 문화로 이어가는 연속성을 추구하여 교육의 효과를 올리기 위해 농 아동 중심의 교육, 사회, 문화를 인정하는 교육 본질에 초점을 둠. ② 농 교육에 문화적 접근법을 통하여 농인들의 문화와 시각언어인 수어 계승.	청인 주관의 기능적 분석이 아닌 농 아동의 욕구 분석에 따른 교수법이라는 것에서 기존의 방법과는 큰 차이가 있음.

### 3. 한국 농인과 기독교 교육

#### 3.1. 한글 지문자 창안

1946년 9월 1일에는 농인들에게 ‘제2의 세종대왕’으로 불리는 윤백원이 ‘한글 지문자(指文字)’를 창안하여 반포하여 농 교육과 농 사회는 획기적인 개혁의 길

25) 자료제인용:

E. Drasgow, “American Sign Language as a Pathway to Linguistic Competence”, *Exceptional Children*, 64 (1998), 329-342.

C. Feldman, “Oral Metalanguage”, D. Olson and Torrance, eds., *Literacy and Orality*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1), 47-65.

E. Fleetwood, and M. Metzger, *Cued Language Structure: An Analysis of Cued American English Based on Linguistic Principles* (Silver spring: Calliope press, 1998).

C. Ewoldt, “Deaf Bilingualism: A Holistic Perspective”, *Australian Journal of the Education of the Deaf* (1996), 2, 5-9.

을 트이게 하였다. 당시 농 학생들은 일본 수어로 교육을 받아와 일본 수어를 사용하고 있어 우리나라 지문자가 없는 실정에서 ‘한글 지문자’를 제정하여 농 학생들에게 보급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농 교육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 3.2. 수어에 대한 관심 증대 시작

구어 교육 열기에도 끈질긴 생명력을 지닌 수어는 농인들에게 있어서 최상의 자연스러운 모어라 할 수 있다. 구어교육 열기로 인해 많은 농 학교에서 수어로 진행되는 교육 방식이 농 교육의 실패 원인으로 여겨져 서울농학교 교사들이 주축을 이루어 농 학생들과 졸업생들 사이에 통용되는 수어들을 모아 체계적으로 해설해 수어 통일을 기해보자는 목적으로 한국 수어사에 획기적인 일로 기록될 만한 일인 ‘수화’를 편찬하여 등사 인쇄물로 발간하였다. 1979년에 ‘우리들의 수화’와 1982년 7월에 ‘표준수화사전’이 편찬되었으며, 이때부터 청인 사회에 폭발적인 수어 붐이 일어났다. 여러 농인들과 또한 청인들에 의한 수어 교재들이 지금까지 다양한 종류로 발간되어 오고 있다.

1979년 5월 5일 ‘제13회 어린이날 경축대잔치’에서 KBS 공중파 방송을 통해 수어로 통역하는 장면이 처음으로 시도되어 공중파 방송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수어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었으며, 공중파 방송을 통해 많은 청인들이 농인의 언어인 수어를 접하게 됨은 물론 젊은 청인들 사이에 수어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었다.<sup>26)</sup>

### 3.3. 농인 교회의 농인 성도들의 특성과 기독교 교육

우리나라에는 농인들을 위한 기독교 교회는 100곳이 넘는다. 특히, 주목할 점은 1996년 10월 3일에는 전국의 약 3천 명의 농인 기독교 신자들이 운집해 ‘한국 농아선교대회’가 성대히 개최되는 등 현존하는 농인들을 위한 여러 종교 중에서 가장 활발한 활약상을 보이고 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입으로 말함으로 구원에 이른다(롬 10:17)고 하였다. 농인은 듣고 말할 수 없기에 듣지도 입으로 시인하지도 못한다. 이로 인해 복음 전파에 가장 어려움을 지닌 장애인이 청각 장애인이다. 복음의 가장 중요한 ‘들음’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선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농인 교회의 농인 성도들을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다.

26) 한국농인협회, 『농인과 사회』, 서울: 한국농인협회, 1999.

- ① 농인 부모의 농인 자녀
- ② 청인 부모의 청인 자녀
- ③ 농인 부모의 청인 자녀
- ④ 농인 자녀를 둔 청인 부모
- ⑤ 농인 자녀를 둔 농인 부모
- ⑥ 청인 자녀를 둔 농인 부모
- ⑦ 청년층
- ⑧ 성인층
- ⑨ 구화(口話)를 사용하는 농인
- ⑩ 수화(手話)를 사용하는 농인
- ⑪ 교육 및 경험수준이 높은 사람
- ⑫ 교육 및 경험수준이 낮은 사람
- ⑬ 중복 장애를 갖고 있는 농인
- ⑭ 봉사자 및 수화를 사용할 줄 아는 청인

이상과 같이 열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물론 이들에 대한 교육 방법은 동일할 수 없으며 그 특성에 맞게 분리된 교육이 필요하다. 농인들이 한국어 문장력이 뒤쳐지는 이유는 듣지 못하여 소리와 단절되었기 때문에 음성 언어를 바탕으로 한 한국어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해해야 한다.

아직도 한국의 농인 교회의 농인 성도들은 교육의 기회를 접하지 못한 미취학(문맹) 농인들이 많다. 이들은 과거 어려웠던 시절에 태어나 마땅히 배울 만한 곳도 없이 집에만 틀어박혀 집안 잔일을 도와주며 자랐고, 이로 인해 배우지 못한 한은 크다고 할 수 있으며 누구보다도 배우고자 하는 욕구가 강한 편이다. 농인에게 있어서 배운 수준과 신앙 수준은 반비례한다고 본다. 수어로 의사소통에 아무 문제가 없으면 농인 목사가 진행하는 설교 말씀을 80%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 성장은 꾸준한 교육과 지도를 통해 이룩해 나갈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수어를 잘하는 농인이라 할지라도 모든 설교 내용을 100% 이해하는 농인은 없다. 그것은 수어가 주는 단순함과 여러 가지 뜻을 하나의 수어로 사용함으로써 오는 불명확성으로 인해 뜻을 파악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관한 시청각 자료의 활용과 개발은 필요할 수밖에 없다. 청인들을 대상으로 한 시청각 자료는 많이 있지만 농인들을 위한 자료는 그다지 없는 것이 현실이다.<sup>27)</sup>

27) 김태수, 『농인 커뮤니케이션과 기독교 교육』, 석사학위 논문, 한세대학교, 2003.

## 4. 농인들의 모국어 수어(手語)에 대한 이해

### 4.1. 한국 수어의 개념과 이해

#### 4.1.1. 한국 수어의 개념

한국 수어에 대한 개념은 한국의 농인들이 사용하는 손으로 표현하여 보고 느낄 수 있는 언어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부터 불과 수 년 전까지만 해도 농인들에 대한 대우는 그다지 좋지 않았다. 그런 까닭에 많은 농인들이 투쟁성을 띤 시위를 대대적으로 벌였을 뿐만 아니라 농인들의 언어인 수어를 언어로 인정해 주는 사회 분위기가 부족한 가운데 농인에 대한 제도적 지원마저 거의 없어 보이는 정부의 태도에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농인들도 있다.

수어는 농인들의 의사소통이며 농인들이 상대방이 사용하는 수어를 이해하고 손을 통하여 글로 표현할 수 있다. 농인 한 개인이 생각하고 있는 자신의 생각을 수어로 말하고 이해시키는 데에 있어서 언어적 성질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도출해 낼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까닭에 수어는 하나의 언어로 확실한 인정을 받아야 하고 어떤 특별한 이유로도 침해될 수는 없는 당당한 하나의 언어인 것이다. 언어의 기능은 서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을 교류할 수 있어야 하고 특히 수어는 서로가 함께 존중받고 배워야 할 필요가 있는 언어이다.<sup>28)</sup>

#### 4.1.2. 한국 수어의 이해

한국 수어는 우리나라 농인들의 몸짓적인 언어이자 자연적인 언어이며 농인인 사용자들에 의해 자연스럽게 오랜 기간 개발되어 온 언어이다. 한국 수어는 일반적인 언어가 갖고 있는 모든 특징인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 부호를 사용하는 규칙적 통제 체계이다. 한국 수어 내에서 부호들은 특별한 손의 움직임과 변형들이 있으며 이것이 이 손의 움직임과 변형들은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얼굴 표현에 의해서 바뀌어진다. 이들의 몸짓들과 부호들이 수어이다. 이들이 얼굴 표현을 나타내는 이유는 청인(聽人)들은 음성을 통해 자신의 감정 및 역량을 표현하지만 농인들은 얼굴 표현으로 나타낸다. 즉 말 또는 소리에 의존하지 않는 표정이 풍부하고 살아 있는 독특하고 특별한 언어이다.

한국 수어는 문법과 문장 구성과 숙어적 사용 또한 형태와 지역적 다양성들을 갖고 있으며 농 사회 속의 농인들을 통합하는 공유의 언어이기도 하다. 다시 말하자면 수어는 농인들의 언어이며 이것은 그들의 유일한 의사소통 수단이라 해

28) 최상배, 안성우, 『한국 수어의 이론』, 서울: 서현사, 2003.

도 과언이 아니다. 손으로 표현하는 내용을 눈으로 파악하는 시각화(視覺化)된 언어이다. 그러므로 수어로 의사소통을 할 때는 농인들의 정면에서 마주본 채 해야 한다. 시각화된 언어이기 때문에 수어를 하는 동작 하나하나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해야 하며, 청인(聽人)의 음성 언어(한국어)에서 억양과 말투에 따라 말을 길게 하고 짧게 하는 데 따라서, 그리고 말꼬리를 올리고 내리는데 따라서 문장의 의미 자체가 달라지듯이 수어 역시 손의 높낮이와 손가락의 펴고 쥐는 정도, 이동의 정확도와 동작하는 횟수와 접촉 부위, 그리고 손의 위치 등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진다.

음성 언어에서도 억양이나 말투, 음색과 눈짓 등의 비언어적 메시지들이 언어적 메시지 이상으로 송신자의 의향을 전달하는 데 주요한 기능을 하듯이, 시각언어인 수어에서도 표정과 제스처 등은 손의 동작만으로 전달하기 어려운 미묘한 내용들을 전달하는 데 큰 기여를 한다. 이에 따라 표정과 제스처가 생략된 수어는 진정한 의사소통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어떤 민족의 언어가 우리 모국어인 한국어에 비해 어순도 다르고 비과학적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서 그 언어를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야 한다고 주장할 수 없듯이 수어도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언어와 비교해 문장 구조가 다르다고 해서 사회의 다수들이 사용하는 언어구조에 맞춰 뜯어고쳐야 한다는 주장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외국어를 그 나라의 문화적 맥락에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듯이 수어를 배우는 사람들은 농인들이 사용하는 수어도 역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세심하게 표현해야 한다는 것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sup>29)</sup>

## 4.2. 한국 수어를 구성하고 표현하는 수어의 특징

수어를 구성하고 표현하는 수어의 특징의 예는 다음과 같다.

### 4.2.1. 공간적 배열

음성 언어가 계시적(啓示的)으로 음소를 배열하는 데 반해 수어는 공간적으로 수어소를 배열한다. 수어의 공간배열은 단어 구성과 문장 구성의 측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특히 문장 구성의 측면은 수어의 문법과 관련된 내용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 4.2.2. 사상성과 규약성

음성 언어가 자의적으로 구성되는 반면에 수어는 사상성(寫象性)이 강하다.

29) Ibid.

즉 수어의 의미와 표현 간에는 사상관계가 강하다. 또한 수어는 사상성만으로 조동되는 것이 아니라 규약성(規約性, 또는 자의성)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수어는 사상성과 규약성에 의해 구성되지만 성이 높고, 추상적인 것은 규약성이 높다. 또한 수어가 발달하면서 사상성은 감소하고 규약성이 증가한다. 그 이유는 경제성의 원리(사상적 표현은 조동의 노력이 많다.)와 고급 언어일수록 추상적인 표현이 증가한다는 것, 그리고 음성 언어의 다의미성(예: 오르다-산에, 값이, 인기가, 막이)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한편 각 나라마다 수어 어휘의 수가 다른데 이는 자의적인 수어의 많고 적음과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 4.2.3. 동시성

수어는 양손을 주요 조동기관으로 하고, 공간과 몸을 운동장소로 하는 시각적 기호이다. 음성 언어가 계시적인 분절임에 반해 수어는 동시적인 분절을 지닌다. 즉, 수어소들이 동시적으로 짝을 맞추어서 수어단어를 형성한다. 이 동시성은 조어제약(造語制約)의 원인이 된다.

#### 4.2.4. 가역성

가역성(可逆性)은 어떤 구어에도 존재하지 않는 수어만의 특성이다. 이 가역성은 대개 반의어에서 관찰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수어에서 [밝다]/[어둡다]의 반의어는 수형은 같고 다만 수향이 반대이다. 그러나 구어에서 ‘사전/전사’는 조음의 견지에서는 가역성이지만 반의어는 아니다.

#### 4.2.5. 반복성

반복성(反復性)은 구어에서도 볼 수 있는 공통적인 특성이다. 예를 들면 의성어나 의태어 및 그 외의 강조에도 반복하게 된다. 미국 수어(ASL)<sup>30)</sup>의 명사의 경우는 반복하지만 동사의 경우는 반복하지 않는다(예: SEAT/CHAIR). 반해 한국 수어(KSL)와 일본 수어(JSL)는 명사의 경우에는 반복하지 않지만 동사의 경우에는 반복한다.

이 반복은 재현의 의미와는 다르다. 이 경우 수어가 재현 없이는 자유형태소로 존재하지 않고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예: ‘항상’, ‘가끔’ 등은 재현이 수반되어 의미를 나타낸다).

30) ASL (American Sign Language)로서 미국 수어를 의미함. ASL은 AMESLAN이라고도 불리며 다른 나라의 자연 수어를 명명할 때도 이와 같은 방식이 사용된다. 따라서 한국 수어는 KSL (Korean Sign Language), 일본 수어는 JSL (Japanese Sign Language)로 사용된다.

#### 4.2.6. 조음과 조동의 운동량

음성 언어의 조음(調音)에 필요한 혀의 운동량보다는 수어의 조동(調動)에 필요한 손과 몸의 운동량이 크다. 따라서 인간의 경제성 요구 때문에 수어 표현은 자연스럽게 간결한 방향으로 변하게 된다. 즉, 조동에 걸리는 시간은 인간의 뇌의 정보처리 용량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수어 조동에 필요한 최적의 단어 수가 결정된다.

#### 4.2.7. 비수지신호의 적절한 사용

표정, 머리의 방향, 시선, 몸의 방향, 몸의 움직임 등을 비수지신호라 한다. 수어표현에서 비수지신호는 매우 중요한데 음성 언어의 초분절 음소와 같은 역할을 함으로써 의미를 더욱 정확하게 나타내는 데 사용된다. 또는 손동작 없는 비수지신호만으로 부사적인 의미를 나타내기도 한다. 예를 들어 특정 얼굴 표정으로 [아프다], [안타깝다] 등의 표현을 할 수 있다.

#### 4.2.8. 기타 특징들

이 외에도 수어는 입체적 언어표현이 가능한 선적(線的) 특성, 장(場)의 도움 없이는 표현이 불가능한 장의 표현(예: 나, 너), 언어 표현의 보편적 표현 외에 감성적 형태의 창조적 표현이 가능한 감성적 표현, 표현상의 심미성(審美性) 등과 같은 특징이 있다.

이상으로 수어 표현의 기본 특성을 살펴보았다. 수어는 음성 언어에 비해 여러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으나 반면에 음성 언어가 가지지 못한 장점도 가지고 있다. 즉, 공간적 배열, 동시성, 표현 수단의 선적 특성, 감성적 표현, 가역성 등은 수어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특성이 있다.<sup>31)</sup>

## 5. 수어 성경

### 5.1. 수어 성경 번역의 예

농인은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음성 언어인 말을 획득하여 사용하는 것이 어렵다. 그 대신에 볼 수 있으므로 시각 운동 체계인 수어를 생성하고 획득하여 사용하고 있다. 농인들에게 있어서 문자언어는 외국어를 배우기보다 더 어려운 언어

---

31) Ibid.

일 수밖에 없다. 아래에서는 수어 성경으로 ‘의역’<sup>32)</sup>할 경우 수어의 문장 구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시편 23:1-4”의 예로 의역된 부분을 참고로 보여주고자 한다.

(시편 23:1-4)

(\*성경본문 아래에 밑줄로 표시한 것은 수어로 의역한 것임)

1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나+~의 양+키우다+사람+~이기에 나+부족하다+~것+없다

2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של 만한 풀** 가으로 **인도**하시는데도다  
 하나님+나 초록+풀+밭 눕다+주시다 쉬다+좋은 시냇물+곳 안내하다+주시다

3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도다  
 나+영혼 다시+살리다+주시다 하나님+이름+위하여 바르다+길+곳+안내하다+주시다

4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찌라도  
 나 죽다+~의 어둠+깊다+골짜기+곳 다니다+그러나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죽음 무섭다+아니다+이유 주님+나+동행+주시다+~ 때문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지팡이+막대기+가지고(~으로) 나+평안+보호+주시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음성 언어인 한국어와 달리 한국 수어로 문장을 구성하는 성분에 문장의 골격을 이루는 주성분(주어·목적어·서술어)과 주로 주성분의 내용을 수식하는 부속성분(부사어), 문장에서 독립해 있는 독립성분(독립어) 등이 있다. 수어문장의 부속성분에도 한국어 부속 성분에 있는 관형어가 있기도 하거나 관형어는 체언과 결합하여 명사구가 되거나 명사절이 되어 다른 문장 성분의 재료가 되기도 한다.

수어 문장의 구성에 있어서도 문장 성분의 구성에 일정한 유형(문형)이 있으며, 문장 성분의 배열에 일정한 순서(어순)이 있다. 수어문장을 이에 따라 수어문장에 무주어문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 형용사 ‘무성하다’는 나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나무가 무성하다’가 되므로 주어(나)를 가질 수 없고, ‘집이 무너

32) 여기서는 한국어로 번역된 성경의 의미를 한국 수어로 전달한다는 측면에서 “의역”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그렇지만, 엄밀하게 보면 이는 “수어”라는 언어를 사용하는 또 하나의 “번역”이라고 생각해야 할 것이고, 한국어로 번역된 성경을 한국 수어로 다시 번역한다는 점에서 “중역”의 성격이 있는 번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다’는 수어에서는 절이 아니라 단어인데, 단어가 주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따로 주어를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주어와 서술어로 구성된 문장에는 서술어가 주어 앞에 놓이는 문장과 주어 뒤에 놓이는 문장도 있다.<sup>33)</sup>

이에 따라 농인들의 수어는 청인이 입으로 전하듯이 손으로 전하는 것이다. 수어 특유의 문법이 있으며 수어가 형식과 내용을 가진 언어이기도 하다.

## 5.2. 동영상 수어 성경의 필요성

한국에 사는 우리 농인들을 보면 미국에 이주해서 살고 있는 한인들과 마찬가지로 현재의 바벨탑 시대를 살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이는 말이 달라서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기 때문이다. 농인들은 현실적으로, 음성 언어를 주로 사용하는 거대한 청인 주류의 사회에서, 언어의 다름 때문에, 가정과 사회 그리고 교회에서까지도 의사소통이 잘 안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보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한국 사회에 있는 한국인들 모두에게 한국어가 모국어이고 수어는 따로 배워야 하는 것처럼, 수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는 농인들에게 한국어는 따로 배워야 하는 언어이다. 그들에게 한글로 된 성경을 읽고 이해하라고 하는 것은 바벨탑 시대를 연상하게 한다. 모든 농인들이 글을 완전히 모른다는 것은 아니다. 농인 사회에도 농인들이 자라온 환경에 따라 수어를 아는 농인과 수어를 모르는 농인, 한글을 어느 정도 아는 농인과 한글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농인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위해 동영상 수어 성경이 반드시 필요하다.

동영상 수어 성경으로 제작을 하게 되면 위의 시편 23편의 예와 같이 성경 구절을 자막으로 처리하고 농인 목회자 또는 농인 모델(신학을 공부하고 농인 사회에서 사용하는 수어를 잘 구사하고 성경 내용을 잘 이해하는 농인)이 수어로 의역하여 성경 내용 그대로를 수어 언어에 맞게 전하는 동영상으로 제작할 필요가 있다.

한국 사회의 농인 교회는 농인 교사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농인 교회와 일반 교회의 차이점을 들자면 농인 교회는 농인 중심으로 농인 교사가 많다는 점이며, 일반 교회 내에 있는 농인부는 청인 교사가 많다는 점이다. 농인 교사의 자질적인 문제는 그들의 성경 이해와 수어의 능숙도에 따라 다르다.

시편 23편을 수어로 의역한 내용을 보는 것과 같이, 수어를 구사하는 농인이라도, 성경의 문장 체계를 정확하게 이해하여 그 뜻을 명확하게 수어로 구사할

33) 한국 표준수화규범 제정 추진위원회 편, 『한국수화문형사전』, 서울: 국립국어원·한국농인협회, 2007.

수 있는 농인 교사들은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농인 성도들까지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성경 내용에는 이름과 지명처럼 생소한 외래어로 된 처음 보는 단어들도 많은데, 농인들은 이러한 낱말에 대해 매우 낯설어 하며 그 뜻을 잘못 해석하여 글자 그대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동영상으로 된 수어 성경의 필요성이 절실할 수밖에 없다.

이는 농인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들도 농인인 가족과 바르게 대화하기 위해 그들의 언어를 이해해야 하는데, 이러한 사람들에게도 수어 성경은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농인들의 수어를 바르게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도 수어 성경은 필요하고, 수어 통역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예배 시에 바르게 수어로 성경 본문을 전달하기 위해서도 수어 성경은 필요하다. 농인과 함께 하는 성경공부를 위해, 농인 목회자 양성을 위해, 이 외에도 다양한 상황에서 동영상 수어 성경이 미치는 영향은 크다고 볼 수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농인 당사자들이 스스로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스스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성경을 공부하도록 하려면 동영상 수어 성경의 보급은 꼭 필요하다.

예를 들어 농학교에 농인 학생에게 수어를 조금 할 줄 알고 구화를 주로 구사하는 교사를 배치하면 그 교사는 자연스러운 수어를 구사할 수도 없고 입모양과 함께 수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수어만 사용해 왔던 농인 학생의 입장에서는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배우는 데 답답함을 느끼게 된다. 농인의 언어인 수어만의 언어적 특성 그대로를 살린 동영상 수어 성경의 제작 보급은, 농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심어주는 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한국에는 35만의 농인들이 있으며, 중국의 경우는 10억이 넘는 인구 가운데 약 2천만 명이 넘는 농인들이 있다고 한다. 아직까지도 교육 환경이 한국의 1960년대 후반의 모습들과 같은 교육 환경도 열악한 중국의 많은 지역들뿐만 아닌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을 비롯한 러시아 지역 외에도 필리핀 등을 포함한 동남아시아에도 한국의 많은 농인 교회와 농인 성도들이 선교 활동 및 봉사를 위해 매년 진출하고 있으며 농인 선교사들을 파견하고 있다. 이들이 선교 활동을 하기 전에 앞서 성경의 내용을 과연 얼마나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이 또한 다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아닐 수가 없다.

로마서 10:17 말씀을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입으로 말함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하였다. 하지만 농인은 듣고 말할 수 없으므로 입으로 시인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복음 전파에 가장 어려움을 지니고 있다. 복음의 가장 중요한 통로인 들음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제대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선 동영상 수어 성경이 필요하지 않을 수가 없다.

## 6. 나가는 글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위해 영어 성경이 필요하듯이 농인들을 위해, 농인 가족들을 위해, 수어를 통해 농인을 위한 전도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농인과 함께하는 예배와 성경 공부를 위해, 올바른 수화 통역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농인 목회자 양성을 위해, 그리고 농인들을 대상으로 성경 공부를 효과적으로 시키기 위해, 또한 한국에 이주해서 사는 외국 농인들 등 많고 많은 이들을 위해 농인들의 모국어로 번역된 동영상 수어 성경이 필요하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농인들에게 관심은 있었으나 수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농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전하는 일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농인들은, 외적으로 눈에 띄는 장애인들에 비해 신체적으로 건강하다는 이유로, 내적 외적으로 의사소통 장애와 정보 장애로 인해 크게 작게 상처를 받으며 살아왔다. 한국 수어만을 자신들의 언어로 사용하는 농인들에게는 한국어로 번역된 성경은 다른 외국어 성경과 같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아직 닫혀 있다. 농인들도 복음문맹에서 벗어나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수어 성경을 번역해 주어야 한다. 시각언어라는 수어의 특성상 수어 성경은 동영상으로 제작해 주어야 한다.

이제는 청각 장애를 가졌다 해서 농인이라 해서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한다는 것은 장애 조건이 아닐 뿐만 아니라 남에게 주목받는 대상도 아니다. 다시 말해서 청각 장애라는 것을 장애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사실 그대로’ 단지 ‘수어’라는 언어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는, 단지 듣지 못하는 사람일 뿐이라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공평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농인들과 함께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농인들의 시각언어인 수어로 번역된 수어 성경을 통해 농인을 복음에서도 소외되지 않게 통합시키려고 노력한다면, 농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성도로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유익한 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주요어>(Keyword)

농인, 농인 사회, 농인 문화, 농 정체성, 의사소통, 한국 수어.

Deaf, Deaf Community, Deaf Culture, Deaf identity, communication, Korean Sign Language.

<참고문헌>

- 강주해, “농인의 사회와 문화”, 『농인과 사회』, 한국농아인협회 (1999), 260-276
- 강주해, 『농인 그는 누구인가?』, 서울: 농아사회정보원, 2002.
- 계기훈, “한국 농사회의 역사”, 『농인과 사회』, 한국농아인협회(1999), 229-250
- 계기훈, 『한국농아 역사』, 미간행 원고, 서울: 영락농인 교회, 1999.
- 김 완, 『청음』, 서울: 한국청각장애자복지회, 1984.
- 김 완, 『청음』, 상반기호, 서울: 한국청각장애자복지회, 1991.
- 김병하 외 3인, 『청각장애아 교육』, 대구: 대구대학교 출판부, 1990.
- 김병하, 『특수교육 교사론』, 대구: 대구대학교, 1999.
- 김병하, 『특수교육의 역사적 이해』, 서울: 형설출판사, 1985.
- 김병하, 『特殊學校 教育課程 動向比較 研究 -聾學校 教育課程을 中心으로』, 서울: 韓國再活科學會, 1985.
- 김칠관, “한국수화”, 『농인과 사회』, 한국농아인협회(1999), 381-396
- 김태수, “농인 커뮤니케이션과 기독교 교육”, 석사학위 논문, 한세대학교 신학대학원, 2003.
- 변승일, “농 문화 이해하기”, 『아름다운 손짓』 24 (2003), 72-73
- 변승일, “한글 지문자 창안 윤백원 선생”, 『아름다운 손짓』 1 (1997), 9
- 안영희, “한국 농인 사회의 역사적 변천에 관한 탐색적 연구”, 석사학위 논문, 나사렛대학교 재활복지대학원, 2004.
- 안일남, 『농 문화와 정보』, 제3회 세계 농아연맹, 아시아 태평양지역 회의록, 1992.
- 이와이 외 편역, 『수화의 인식전환을 위한 농 문화의 이해』, 서울: 농아사회정보원, 2002.
- 이준우, “한국 농 청소년의 농 정체성과 심리사회 기능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 숭실대학교, 2003.
- 최상배, 안성우, 『한국 수어의 이론』, 서울: 서현사, 2003.
- 한국농인협회, 『농인과 사회』, 서울: 한국농인협회, 1999.
- 『八十年的 발자취』, 서울: 서울선회학교, 1994.
- Drasgow, E., *American Sign Language as Pathway to Linguistic Competence. Exceptional Children* 64, 1998.
- Glickman, N. S., *Deaf Identity Development: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a Theoretical Model*, Amherst: University of Massachusetts Press, 1993.
- Holcomb, R., “Development of Deaf Bicultural identity”, *American Annals of the Deaf* 142:2 (1997), 11-40

Kelly, J. E., *Transliterating: Show me the English*, Alexandria: RID Press, 2001.

Lucas, C. and Vallil, C., *Language Contact in the American Deaf Community*, 1989.

Maxwell, M., “Simultaneous Communication: The State of the Art and Proposals for Change”, *Sign Language Studies* 69 (1990), 333-390.

Sherman, W. and Padden, C., “The Deaf Community and the Culture of Deaf People”, Sherman W., ed., *American Deaf Culture: A Anthology*, Butonsville: Linstok Press, 1989.

Weinberg N. and Sterritt, M., “Disability and Identity: A Study of Identity Patterns in Adolescents with Hearing Impairments”, *Rehabilitation Psychology* 31:2 (1986), 95-102.

보건복지민중연대 웹저널(2004), “에바다”, <http://www.diffwelfare.net>.

<Abstract>

## **Understanding the Deaf and the Deaf Community and the Need for the Sign Language Bible**

Prof. Young-Hoe Ahn  
(Korea Nazarene University)

Up till now, social integration of the Deaf has been focused only on integrating the minority Deaf to the majority of the hearing people. There being no interchange and communication between the Deaf and the hearing, it is still unfamiliar in Korea to embrace the perspective that ‘the Deaf are members of the socio-cultural community’. Even experts in natural science including medical science or specialists in educating children with hearing difficulties still define the Deaf as people who have ‘lost their hearing’ by their pathological traits. This paper attempts to assert the need for sign language Bible by giving a full understanding about the Deaf society, a community that has not been accurately known to the general public.

Korean churches have long been interested in reaching the Deaf community, and pastors have been using sign language in an effort to deliver the Bible carrying the Word of God to the Deaf whose primary language is sign language. Despite such endeavor, there are limitations for the Deaf to deeply understand the Bible. For the Deaf who use only the Korean sign language, the Bible translated into Korean is just like another Bible in foreign languages. God’s Word is still closed to them. To help the Deaf overcome biblical illiteracy and understand the Bible, the Bible has to be translated into sign language. Strictly speaking, it can be said as another Bible translation. Considering the visual characteristics of sign language, the sign language Bible must be produced in video format.

Instead of acknowledging hearing disability as handicap, it is desperately required to accept the Deaf as they are, namely as people using ‘sign language’ for communication simply because they cannot hear. The ‘Korean Sign Language Bible’ which is in the visual language used by the Deaf, will allow the Deaf and their family members and the many people who treasure and love sign language to know the true meaning of the gospel. Through this Bible, the church which is the body of the Living God will then be able to bear in themselves its inherent vitality as well.